

# 제9기후대-예술가는 어떻게 사는가

대인예술시장 지역작가 10팀 참여 '삼 인 비엔날레'

2016광주비엔날레 기념 기획 프로젝트

점포 10곳 선정 예술 입혀 가게 새로 꾸며

예술 사라져가는 대인시장에 새로운 활력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 사업단이 '2016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자체 기획한 '삼 인 비엔날레'에 참여한 신양호 작가가 꾸민 '제일머리고기' 상가 내부.



매주 토요일마다 아시장 '별장'이 열리고 있는 대인예술시장. 재래시장인 대인시장 명칭에 '예술'이 붙은 연유는 제7회 '2008 광주비엔날레'가 계기다. 최근 별장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광주비엔날레 기념 '삼 인 비엔날레'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작가 10(12명)팀이 시장 점포 10곳을 예술적으로 꾸몄다.

주제도 흥미롭다. 광주비엔날레 올해 주제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패러디해 '제9기후대-예술가는 어떻게 사는가'로 잡았다. 비엔날레가 예술의 역할을 묻는다면 대인예술시장은 현실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주목했다. 특히 점포 예술이 사라져가는 대인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예정이다.

김해성 작가가 큐레이터를 맡고 박문중, 김영설, 신양호, 최재영, 고근호, 김영태, 정운학, 김일근, 김상연, 강옥현, 성유진, 김영일 작가가 참여했다.

대인예술시장 초창기부터 활동했던 도예가 김영설 작가는 본인이 즐겨찾던 대

인분식을 꾸몄다. 가게 내벽에 도자기 접시 20여점을 설치했다. 접시에는 추상화를 비롯해 꽃게, 산수화 등을 아끼자기하게 그려넣었다. 대표음식 2000원짜리 국수를 그린 접시에는 '예술보다 국수'라고 써넣은 점이 재미있다. 또 식당에서 사용하라고 도자기 그릇 20여개도 선물했지만 식당 주인은 혹시라고 깨질까봐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다른 초기 멤버 신양호 작가는 돼지머리고기에 막걸리 한잔을 기울였던 제일머리고기 음식점을 찾았다. 널빤지에 생선을 그린 작품을 비롯해 돼지가 웃고 있는 매뉴판, 시계를 활용한 리씨아클링 아트가 눈에 띈다. 선반도 직접 제작해 각종 공예품을 채워넣기도 했다.

박문중 작가는 과일을 취급하는 노점상 손수레에 '윤작이는 가게'(진화상화)라고 이름붙였다. 수레 곳곳에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 그림을 그렸다.

치킨전문점 '덩킨치킨'에서는 최재영 작가가 솜씨를 발휘했다. 가게 분위기에

맞는 닭 그림에 큼직하게 상호명을 써넣었다. 또 가게 내부에는 꽃, 풍경, 나무를 그려넣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쪽 벽에서 웃고 있는 아이는 김은자 작가가 특별히 부탁한 손자 그림이다. 어린 이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한다.

장수마을 건강원을 방문하면 건강미의 상징 '뽕배이'가 반긴다. 성유진, 강옥현, 김영일 작가가 참여했다. 포도즙을 손에 든 뽕배이와 올리브는 김영일 작가가, 패CD를 활용해 뽕이 반짝이는 사슴은 성유진 작가가 그렸다. 강옥현 작가가 그린 인삼 그림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정운학 작가는 대인시장 입구에서 세자매가 운영하는 '대인전집, 흥어나라·대인수산' 간판 위에 물고기 조명작품을 설치했다. 최근 새롭게 설치한 아케이드와 어울려 세련된 분위기를 끌어낸다.

김일근 작가는 국밥 전문점 대풍식당에 요리사 복장을 차려입은 돼지를 그려넣었고 김상연 작가는 돼지머리에게 '본전식

품'에, 김영태 사진작가가 건어물 도소매점 순창상회에 작품을 설치했다. 고근호 작가는 닭발과 오리고기를 공급하는 중앙유통 매뉴판을 한옥 패자재를 활용해 새롭게 제작했다.

윤경민 대표는 "평소 친했던 예술가들이 점포를 예쁘게 꾸며줘서 손님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작가들이 직접 TV, 그릇선반도 만들어 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별장사업단 관계자는 "처음 공모를 했을 때 약 2:1 경쟁률을 보이는 등 관심이 높았고 지금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상 상가를 모집해 꾸밀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달 별장(24일)은 '애지중지'를 주제로 가야금, 폼파, 마당극 등을 진행한다. 한평 갤러리에서는 27일까지 시장 상인들이 평생 사용해 온 칼, 도마, 망치 등 도구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한지공예', '종이 저금통 만들기' 등 무료체험도 운영한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영설 작가가 도자기 작품으로 꾸민 대인분식.



침이 그려진 장수마을 건강원.



대풍식당에 김일근 작가가 그린 요리사 복장 돼지.

‘대숲에 이는 바람’

김남기 작가 개인전

10월 29일까지

담양 대나무박물관갤러리



‘힐링’

대숲에서 노는 참새를 통해 여유를 전하는 종산 김남기 작가가 10월29일까지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갤러리에서 ‘대숲에 이는 바람’전을 연다.

공직자(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로 재직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난 40여년 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준다. ‘힐링’시리즈를 비롯해 화조도, 시화(詩畵), 도자기, 육각 등 공예작품까지 다양한 장르 30여점이다.

작품 ‘힐링’은 초록 대숲에 참새를 등장시키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산이든 물이든 그대로 두라!’ 등에서는 그림과 함께 시를 선보인다. 특히 한지, 부채, 방패연, 대마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쪽빛으로 천연염색한 천에 아

크릴로 모란을 그려넣었다.

작품 소재도 다채롭다. 대숲 뿐 아니라 화순 운주사 와불, 도연명 시, 매화, 한옥마을 등 풍부한 문인화 세계를 펼쳐 보인다. 또한 ‘어! 스토리텔링하세’, ‘그대 등(燈) 뒤에 서면’, ‘마음의 여유를 찾아’ 등 문학적 소양을 발휘해 명제를 붙인 점도 눈에 띈다.

지난 1976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김씨는 남재 송전석 선생에게 서예를, 장강 김인화 선생에게 문인화를, 석운 김재일 선생에게 한국화를 사사했다. 연천 미술원을 수료하고 전국공무원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광주·전남 문인화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문의 061-380-290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낭만 씨어터’ ‘...스윙밴드’ 초청 연주

‘순수’ 23일 양림동 우원순 선교사 사택서 공연

광주 남구 양림동의 역사문화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는 ‘순수’가 23일 오후 7시 30분 양림동 우원순 선교사 사택에서 올 들어 두 번째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서울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프로젝트 뮤지컬 그룹 ‘낭만 씨어터’와 지역의 실력과 재즈 밴드 ‘빌스트리트 스윙밴드’가 연주한다.

정효정 단장이 이끄는 ‘낭만씨어터’는 뮤지컬, 연극 등 서울의 무대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배우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공연 그룹이다. 이들은 뮤지컬 ‘울속업’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레미제라블’의 ‘On My Own’, ‘치킬앤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등을 부른다.

또 젊은 재즈 밴드 ‘빌스트리트 스윙밴드’가 함께 한다. 리더인 재즈 기타리스트 박완신을 주축으로 하는 5인조 재즈밴드인 ‘빌스트리트 스윙밴드’는 이탈리아에서 재즈 연수를 마친 3명의 뮤지션과 각 대학에서 재즈를 전공한 뮤지션들이 모여 결성된 스윙밴드다.

‘Feel So Good’, ‘Smoke Get in Your Eyes’, ‘Mo Better Blues’ 등을 들려준다. 무료 공연 문의 062-651-0972. /김미은기자 mekim@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순나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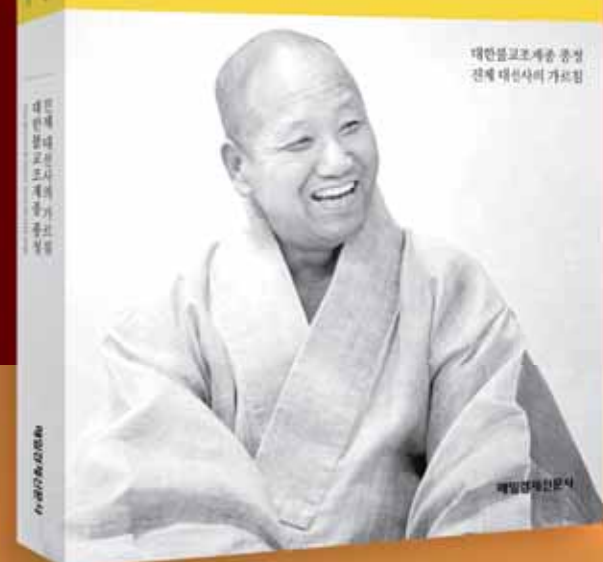
양근로전시회

- 4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참선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길



##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깊이로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진제대선사는 항국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해월-운봉-  
항국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손,  
현재)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지음 | 진제 대선사    가격 | 16,000원    팔공총림 동화사 | 053)980-7903    해운정사 | 051)746-2256